

아가페(αγαπη) 리더십: 한국교회 리더십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기독교적 리더십

김태수*

국문초록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기독교 복음적 리더십의 한 유형으로써 '아가페 리더십'에 대하여 고찰해 보는 것이다. 지배하고 군림하는 권위주의적 리더십 유형이 대세를 이루는 흐름 속에서, 권위주의적 리더십은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된다. 연구자는 권위주의적 리더십 유형의 리더십과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리더십으로 헌신적, 희생적, 그리고 이타적 리더십의 유형으로써 '아가페 리더십'을 문제해결의 대안으로써 제시하고자 한다.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아가페 리더십을 발휘한 인물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실천방법을 소개한다. 이 논문의 독창성은 지배하고 군림하는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차원이 다른, 기독교적 섬김의 리더십 유형으로써 '아가페 리더십'을 연구주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 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영향력은 어떤 조직의 지도자가 구성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아가페 리더십'을 실천할 때, 진정한 지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성찰하게 하는 것이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한국교회 리더십의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지도자들로 거듭 태어나야,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 리더십으로써 아가페 리더십은 연구가치가 충분한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심단어: 아가페 리더십, 리더십 위기, 예수, 바울, 섬김

• 논문 투고일: 2016년 10월 1일

• 논문 수정일: 2016년 11월 1일

• 게재 확정일: 2016년 11월 4일

*백석대학교

I. 여는 글

미래학자인 최윤식은 한국교회의 위기상황을 불러온 원인으로 “일부 지도자들의 성 윤리, 부적절한 재정 운용, 학문적 비윤리 등”이라고 분석하였다.¹⁾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윤리적 탈선의 문제,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금전적 문제, 비양심적인 학문적 문제 등이다.

일반적으로 권위주의적 리더십은 지도자가 정상의 위치에서 조직의 구성원들을 지배하고 속박하며 명령하는 일방적 소통의 구조이기 때문에, 교회의 경우에도 구성원들에게 상처를 주고 복종과 희생을 강요하기 쉽다. 권위주의적 리더십은 다양한 문제들을 파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기독교적 리더십이 요청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기독교 복음적 리더십의 한 유형으로써 ‘아가페 리더십’에 대하여 연구해 보는 것이다.

교회적으로 유능하고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존재하지만, 언론에 크게 부각되는 것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인 경우가 많다. 한국교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종교지도자들이 금전문제나 성적(性的) 문제와 관련하여 사법적 처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한국교회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개척교회들의 존립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현상을 근거로 한다면 한국교회 종교지도자들의 리더십 위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위치에 있는 다수의 지도자들이 구성원들 위에 군림하고 유유상종하면서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구성원들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헌신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력감과 분노 또는 절망감을 느끼기 쉽다. 이런 군림하고 지배

1) 최윤식·최현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2)』(서울: 생명의말씀사, 2015), 28.

하며 명령하는 수직적인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지도자가 많아질수록 사회적 문제들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새로운 유형의 리더십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아가페 리더십’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논문은 새로운 기독교적 리더십의 유형으로써 ‘아가페 리더십’의 개념과 특징, 실천방법, 그리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고찰해 볼 것이다.

II. 펴는 글

1. 현대 경영학의 리더십 이론과 목회 리더십 이론

이 논문이 중요하게 다루는 ‘아가페 리더십’의 이론을 다루기에 전에, 리더십의 이론과 실천방법들이 적용되는 주요 분야는 경영학이기 때문에, 경영학의 리더십 이론을 간략하게 정리해 볼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 리더십과 기독교의 영적(靈的) 리더십이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도표로 대조시켜 살펴볼 것이다.

1) 일반적 리더십 이론의 역사

리더십은 특히 어떤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경영학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영역이다. 목회 리더십이나 아가페 리더십을 다루기에 앞서, 일반적 리더십 이론들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리더십 이론들을 핵심 위주로 명료하게 잘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어서 인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

2) 윤종성, 『리더십 입문서』 (서울: 시간의 물레, 2013), 90-125.

첫째, 특성이론은 리더(leader)는 태어난다는 이론이다. 특성이론은 19세기 말(末)에서 1940년대 중반까지 이론적 중심이 되었는데, '자질 이론'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둘째, 행동이론은 리더가 만들어진다는 이론이다. 194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까지 중심이 된 이론으로 심리학의 행동주의에 영향을 받은 이론으로, 리더십은 학습할 수 있는 것이라는 관점이다.

셋째, 상황이론은 상황에 맞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이론이다. 1960년대 초반부터 1970년대까지 중심이 된 이론이다. 상황이론은 모든 상황에서 항상 효율적인 리더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론의 중심에 둔다.

넷째, 카리스마적(charismatic) 리더십은 조직의 높은 성과와 직업만족도를 리더의 카리스마적 특징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이론이다.

다섯째, 원칙중심 리더십에 의하면 리더십은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다는 진리에서 출발한다. 원칙중심 리더십은 Stephen Covey가 주장한 이론이다.³⁾

여섯째, 변혁적 리더십은 1978년 번즈가 『리더십』이라는 저서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변혁적 리더십의 핵심은 장기적 목표, 구성원의 가치관, 윤리, 행동규범을 통하여 조직과 구성원을 변화시키자는 것이다.

거래적(transactional) 리더십은 리더와 구성원 사이의 사회적 교환관계에 초점을 둔다. 리더와 구성원을 거래관계로 보는 이론이다. 거래적 리더십은 '바꾸다(change)'의 특성이 있는 반면에, 변혁적 리더십은 '변형시키다(transform)'로 폭과 깊이가 있는 변화를 추구한다.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의 차이점을 도표로 명확하게 정리한 자료가 있어서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⁴⁾

3) Stephen R. Covey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인데, 이 이론을 제시하기 전(前), 1776년 이래 미국에서 성공의 주제로 출간된 책과 문헌을 심층 조사하였다.

4) 윤종성, 『리더십 입문서』, 111.

〈표 1〉 거래적, 변혁적 리더십의 차이점

구 분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구성원 동기부여 방법	협상, 교환	구성원의 변화 (구성원의 욕구를 상위 수준으로 이끄는 변화)
구성원 호소점	합리적 사고, 이성	감정, 정서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	거래관계	조언자, 조력자
특징	평범한 성과	비범한 성과

일곱째, 윤리 리더십은 1996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켈로그 재단에서 발간한 『윤리, 리더십의 핵심』이라는 제목의 책이 발간되면서 시작된 리더십이다.⁵⁾ 윤리는 개인이나 사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나 도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여덟째, 감성 리더십은 감성이해로부터 시작한다는 이론이다. 이것은 Daniel Goleman이 주장한 이론으로, 리더가 자신의 내면을 파악하면서 구성원의 감성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조직 구성원들과 관계를 형성하여 조직의 감성 역량을 높여 나가는 리더십이다.

위에서 언급한 이론들 가운데, 특성이론, 행동이론과 상황이론은 리더십 분야에서 전통이론으로 분류된다. 반면에, 변혁적 리더십은 특성이론, 행동이론과 상황이론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이론이다.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동기부여나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가 다른 것은 상식적으로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연구자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구성원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군대와 같은 조직이나 명령하고 지시해야 움직이는 구성원들이 대부분이

5) 원서의 제목은 *Ethics, the Heart of Leadership*으로 윤리는 개인이나 사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나 도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윤리는 크게 2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데, 목적론과 의무론이다.

라면 거래적 리더십이 더 성과를 낼 수 있지만, 구성원들이 성숙된 집단이라면 변혁적 리더십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클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위의 도표에서 특징 항목에서 거래적 리더십이 평범한 성과를 내고, 변혁적 리더십이 비범한 성과를 낸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⁶⁾

리더십에 윤리적 측면을 반영한 “윤리 리더십”과 감성을 반영한 “감성 리더십”은 리더십의 유형을 다양화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 연구가 진행된다면 리더십의 이론이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2) 목회 리더십 이론

목회 리더십은 리더십의 분야 중에서 목회의 영역에 해당된다. 김상복은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4가지로 지식, 인격, 기능 그리고 리더십을 언급하면서 목회는 사람을 얻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⁷⁾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한 사람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또 그 분을 통하여 복음이 전달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사역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그의 주장을 근거로 목회 리더십을 정의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된 존재로 탈바꿈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돕는 것이 목회 리더십이다. 김상복은 목회자의 바람직한 리더십에서 리더의 역할을 7가지로 주장한다.⁸⁾ 리더는 사역자를 발굴하고, 훈련시키며, 자원하는 마음을 일꾼이다. 그리고 리더는 효율적인 조직에 힘쓰고, 권한을 위임할 줄 알며, 우선순위를 알고, 마지막으로 유머(humor)가 있어

6) 도표의 왼쪽 구분의 항목에서 “특징”은 성과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왜냐하면 평범한 성과와 비범한 성과라고 용어를 통일시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7) 김상복, 『목회자의 리더십』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7), 154.

8) 김상복, 『목회자의 리더십』, 130-9.

야 한다고 설명한다.

목회 리더십은 일반적 리더십과 구분되며, 영적 리더십은 목회 리더십의 포괄적 범주에 포함시켜도 무방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 리더십과는 분명한 차이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 리더십과 영적 리더십은 다양한 항목들에 있어서 대조적이고 본질적으로 다른 차이점을 포함하고 있다.⁹⁾

〈표 2〉 일반적 리더십과 영적 리더십의 차이점

일반적 리더십	영적 리더십
자기 확신	하나님 안에서의 확신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음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있음
스스로 결정을 내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씀
야심적임	자기를 내세우지 않음
스스로의 방법을 창안함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따라감
타인들에게 명령하기를 즐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함
개인적인 이유에 의해 동기가 부여됨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에 의해 동기가 부여됨
(자기) 독립적	하나님 의존적

위의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일반적 리더십과 신앙적 차원을 반영하는 영적(spiritual) 리더십은 차원이 다르다. 일반적 리더십은 지도자 개인의 능력과 리더로서 특성들이 중요하지만, 영적 리더십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지도자의 관계가 필수적으로 중요하다.

리더십의 유형과 관련하여 차승만은 교회와 변혁적, 거래적 리더십의 관계를 언급함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리더십 유형들이 존재하고, 환경에 따라서 적절한 리더십을 적용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¹⁰⁾ 목회 리더

9) 샌더스는 리더십의 종류를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위에서 일반적 리더십이라고 번역한 영어 표현은 natural leadership으로 자연적 리더십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J. Oswald Sanders, *Spiritual Leadership* (Chicago: Moody Press, 1967), 21.

10) 차승만, “목회자의 리더십과 교회구성원의 행태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대학원, 2007).

십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성경 속에서 성경적 리더십을 깊이 연구해 볼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성경적 리더십은 ‘성서적 지도력의 모델’로도 다루어진다.¹¹⁾

2. 아가페 리더십의 개념

1) 아가페의 개념

문화권에 따라서 어떤 특별한 용어가 다양하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 헬라 문화권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었다. 먼저 ‘에로스’(eros)는 남녀 간의 육체적 사랑, 성적(性的) 차원의 사랑으로써 혼자서는 충족시킬 수 없는 이성(異性)이 필요한 사랑이다. ‘필리아’(philia)의 사랑은 우정과 같은 차원의 사랑이고, ‘스토르게’(storge)는 혈육의 가족들이 느끼는 가족애로써의 사랑에 가깝다. 그런데, 아가페(agape)는 에로스나 필리아와 다른 차원의 사랑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신적(神的)차원의 사랑이며 가장 고차원적 사랑이다.

위의 개념들 가운데 서로 대조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에로스’와 ‘아가페’이다. 전자의 사랑은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구비했을 때, 생겨나는 차원의 사랑으로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후자는 부족하기 때문에 도리어 사랑의 감정이 생겨나고 부여지는 차원으로 사랑으로 헌신적이고 희생적이며 이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¹²⁾

11) 조광연, 『당신은 주님이 원하시는 성서적 지도자입니까』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6), 128-158. 저자는 성서적 리더십의 모델로 3가지 유형을 박사논문에서 다루고 있다.

12) 일반적으로 TV의 드라마에서 다루는 사랑은 ‘에로스’ 차원의 사랑이다. 인간의 육체적 욕망을 다루는 사랑으로 불륜과 이기적 욕망을 채우는 내용이 대다수이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자식에게 헌신적인 어머니의 사랑과 같이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고차원적 사랑이다.

학문적으로 아가페의 개념을 깊이 성찰하고 연구한 저자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Anders Nygren이다. 그는 아가페 개념의 주요한 특징들 4가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¹³⁾

첫째, 아가페는 자발적(spontaneous)이고 비동기적(unmotivated)이다. 둘째, 아가페는 가치에 치우치지 않는다. 셋째, 아가페는 창조적이다. 넷째, 아가페는 하나님과의 친교를 일으킨다. Nygren은 4가지 측면에서 아가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부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자발적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동기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속성에 가까운 아가페는 가치중립적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가치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아가페는 신적 차원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인 창조성에 참여한다. 끝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교제를 수립하는 주도권은 신적 차원의 아가페에 놓여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Barclay는 예수의 사랑에 대해 설명하면서 4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있다.¹⁴⁾ “첫째,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비이기적으로(selflessly) 사랑하셨다. 둘째,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희생적으로(sacrificially) 사랑하셨다. 셋째,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이해심을 가지고(understandingly) 사랑하셨다. 넷째,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용서함으로(forgivingly) 사랑하셨다”는 것이다.

위의 내용에서 비이기적은 이타적으로 대체할 수 있고, 이해심을 가지고 용서함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헌신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의 아가페 사랑은 이타적, 희생적 그리고 헌신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13) Anders Nygren, *Agape and Eros*, 고구경 역, 『아가페와 에로스』 (고양: 크리스찬 다 이제스트, 1998), 78-83.

14) William Barclay, *The Gospel of John* (Edinburgh: The Saint Andrew Press, 1975), 150-151.

2) 아가페 리더십

아가페 리더십은 아가페(agape)와 리더십(leadership)의 합성어이다. 일반적으로 리더십은 어떤 조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영의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이다. 이런 분야의 리더십은 일반적 리더십에 속하는데, 이 논문에서 언급하는 아가페 리더십은 일반적 리더십과는 차원이 다른 리더십이다. 일반적 리더십이 구성원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지시하며 상부에 군림하는 형태이지만, 아가페 리더십은 지도자가 리더로서 상급자이지만 동시에 구성원들을 섬기는 하인의 역할도 겸한다. 일반적 리더십에서 지도자는 상급자로서 명령하고 지시하면서 군림하지만, 아가페 리더십에서 지도자는 상급자이면서 동시에 하급자 역할도 겸하는 존재이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상급자이면서 섬기는 하급자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아가페 리더십은 역설적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런 역설적 역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도자가 어떤 조직의 상급자로서 어떤 일을 추진하고 방향을 모색하면서 경영적 차원의 결정을 내리고 구성원들에게 목표를 설정해 줄 때는 지도자이지만, 그 결정과 추진할 내용을 실행에 옮길 때에는 구성원으로서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헌신적이고 희생적이며 이타적으로 행동한다면, 그 지도자는 아가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한 기독교상담학자는 아가페 리더십이 일반적이고 세속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복음적이고 영적(spiritual)인 리더십이어서 일반적 리더십과는 구분되는 기독교적 리더십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아가페 리더십의 개념과 원칙과 실천방법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¹⁵⁾

아가페 리더십의 근거를 찾아본다면 성경이 적절하다. 왜냐하면 에로스 사랑은 세속적 영화나 TV의 드라마에서 무수히 다루어지지만, 아가

15) 김태수, 『기독교 리더십의 이론과 실제』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2), 130-180.

페 사랑은 세속적 사랑에서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가페 리더십의 성경적 근거로 이 논문에서는 요한복음 13:1-17절과 요한복음 3:16,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요한복음 13장 전반부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의 장면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13장 1절은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언급한다. 물론 여기서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용어의 헬라어는 아가페(αγαπη)이고, 영어 번역본은 ‘끝까지’를 “예수의 사랑이 완전히 충만한 정도(상태)”라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다.¹⁶⁾ 헬라어는 ‘에이스 텔로스’로 ‘완전히’라는 의미를 내포함으로써 예수의 완전한 아가페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1절에서는 섬김의 수준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께서 행하신 섬김은 아가페 사랑 수준의 고차원적 섬김이었다. 14절은 섬김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스승인 예수께서 섬김을 받아야 할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겨주시는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15절은 섬김의 리더십의 목적을 표현해 주는데, 그 목적이라는 것은 스승이지만 제자들을 섬기는 실천적 사랑의 모범사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아가페 리더십을 발휘하려는 지도자라면 깊이 묵상하고 통찰을 얻어야 할 소중한 본문이다.

두 번째 성경적 근거는 요한복음 3:16의 내용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이다. 이 본문의 사랑도 헬라어 표현은 ‘아가페’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永生)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본문의 영생이라는 단어에서 생명의 헬라어는 조에(ζωη)이다. 생명과 사랑의 상호관계성을 심사숙고한 결과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통찰을 얻었다. 사랑은 생명의 원인이고, 생명은 사랑의 결과이다. 또한, 생명은

16) NIV 번역본은 “the full extent of his love”라고 표현되어 있다.

사랑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랑은 생명을 풍성하게 한다.

세 번째 성경적 근거는 고린도전서 13장이다. 이 본문은 ‘사랑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유명하고 가치 있는 본문인데, 상세한 내용은 이 논문의 후반부인 사도 바울의 아가페 사랑 실천 방법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3.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아가페 리더십의 차이점

다음의 도표는 연구자가 리더십의 유형으로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아가페 리더십의 차이점을 명료화하기 위하여, 도표로 대조시켜 제시하는 연구 자료이다.

〈표 3〉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아가페 리더십의 차이점

항목\유형	권위주의적 리더십	아가페 리더십
특성	지시적, 명령적, 이기적, 수직적	비지시적, 순종적, 이타적, 수평적
중심 인물	리더(leader)	구성원
동기 부여	리더의 이익, 특권, 지위 유지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실천)
신뢰 대상	리더 자신	하나님
핵심 가치	복종, 명령, 이익, 권위(주의)	순종, 겸손, 사랑, 생명, 솔선수범, 성화
구성원위치	하급자, (예속인)	섬김의 대상, 동료(동지)
리더십 위기 상황	도피, 무책임(책임전가), 합리화	직면, 책임적 자세, 희생 각오

위의 표 3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아가페 리더십은 상당히 대조적인 리더십의 유형이다. 권위주의적 리더십은 리더가 중심이 되어 명령하고 군림하는 수직적 리더십이다. 반면에, 아가페 리더십은 지도자보다는 구성원이 중심인물로 간주되며 지도자가 군

림하기 보다는 섬기고 이타적으로 행동하면서 수평적 리더십을 추구한다. 동기부여의 측면에서도 대조적이다. 권위주의적 리더십은 지도자가 자신의 이익과 특권이나 지위를 추구하지만, 아가페 리더십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수평적으로 구성원들에게 헌신하고 사랑을 실천하려는 리더십을 추구한다.

신뢰의 대상은 권위주의적 리더십 유형에서 당연히 지도자 자신이다. 반면에, 아가페 리더십은 지도자의 수준을 초월해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 핵심 가치를 언급한다면, 권위주의적 리더십은 수직적 리더십의 유형이기 때문에, 복종을 강요하고 이익창출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지도자의 권위를 매우 중시한다. 반면에, 아가페 리더십은 지도자가 겸손하게 구성원들의 생명을 사랑하고, 솔선수범하면서 모범을 보이고 구성원들이 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조력자의 리더십을 추구한다. 리더십의 위기 상황에서 권위주의적 리더십은 지도자가 위기에 처하면, 도망가거나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구성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경우가 많다. 반면에, 아가페 리더십에서 지도자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냉정하게 현실을 직면하면서 책임적 자세로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는 유형의 리더십이다. 이상의 다양한 항목들에서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아가페 리더십은 명확한 차이점이 존재하며, 리더십의 결과도 상당히 다를 것이다.

4. 아가페 리더십의 실천방법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 신약성경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전 13:1-13). 특히 아가페 리더십은 추상적이고 고차원적이며 실천이 불가능한 리더십이 아니라, 노력하면 실천할 수 있는 인간적 수준의 것들임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설명하고 있다. 바울이 기독교 지도자로서 강조한 아가페 사랑의 실천 방법들을 성경의 표현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⁷⁾

첫째, 아가페 사랑은 인내(忍耐)를 실천한다. 아가페 사랑의 기본적인 특성은 오래 참아주는 인내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고전 13:4)의 “참는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마크로쉴메이(μακροθυμει)로 능동태 동사이다. 아가페 사랑의 마음으로 참아주는 행위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이다. 이 단어의 그리스어 어근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 단어는 사물을 표현할 때는 사용하지 않고, 사람에게 대해서 표현할 때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 인간관계에서 인내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어떤 조직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조직 구성원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오래 참아줄 수 있는 인내심의 미덕이 요구된다.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원하는 지도자는 인내의 마음과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인내의 미덕(고전 13:4)은 “모든 것을 참으며, ...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전 13:7)라고 다시 반복 강조되는 것을 근거로 한다면, 아가페 사랑의 실천에서 오래 참아주는 인내의 미덕은 대단히 중요한 항목임이 분명하다.

둘째, 아가페 사랑은 온유(溫柔)하게 행동한다. 아가페 사랑의 다른 특성은 온유이다. 그리스어로는 크레스튀에타이(χρηστευεται)로써 이 단어는 ‘낮아지다.’ ‘순종하다.’ 라는 의미의 단어에서 파생되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적인 내적 자세를 뜻한다.

친절과 온유의 차이점은 친절이 외적(外的) 행위인데 대하여, 온유는 어떤 사람의 내적(內的) 태도와 심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신약성경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 가운데 하나(갈 5:22)로써 온유가 표현되어 있다.¹⁸⁾

17) 바울이 강조하는 아가페 사랑의 구체적 모습이 고린도전서 13장 4-7절 사이에 상세하게 항목별로 표현되어 있다.

18)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친절),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이다.

아가페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는 지도자는 구성원들에 대하여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할 필요가 있다. 북풍과 태양의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 벗기기 시험’ 이야기는 지도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풍은 강한 바람으로 나그네의 옷을 단숨에 벗겨버리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한 반면, 태양은 따뜻한 온기를 계속 제공하자 나그네는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이야기에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지도자는 구성원들에 대하여 따뜻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취함으로써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

셋째, 아가페 사랑은 시기(猜忌)하지 않는다. 아가페 사랑의 다른 모습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어 어법에서 시기라는 단어인 제로스(ζηλος)는 어떤 사람이나 사실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과격한 감정이나 상태를 뜻한다. 이 용어는 어떤 사람의 인격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고상한 감정과는 상반되는 손해를 가져오는 격한 질투심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시기심과 질투심은 열등의식에서 오는 부정적 감정이다.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소인배의 태도에서 벗어나, 구성원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타인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아야 하는데, 시기하지 않는 태도는 아가페 리더십에 필요한 덕목이기도 하다.

넷째, 아가페 사랑은 허황(虛荒)된 자랑을 하지 않는다. 한글 성경에는 단순히 ‘자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리스어 페르페르위에타이(περπερευεται)는 ‘허영심이 강하다’, ‘허영을 떨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영어 표현도 vainglorious(vain+glorious)로써 ‘허황된 자랑을 하는’ 이라는 의미로 표현되는 것을 근거로 한다면, 단순히 무조건 자랑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헛된 자랑, 허황되게 부풀려서 자랑을 하지 말라는 뜻이 더 정확한 의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도자들은 자신의 역량을 과장하거나 대단한 인물로 확대하려는 유혹을 느낄 수 있다. 왜냐하면 구성원들과 같은 정도의 역량

과 잠재력으로는 지도자로 인정받기 힘들기 때문에, 실제적 능력보다 자신을 허황되게 과장하고 자랑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진실된 사랑으로써 아가페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는 지도자는 허황된 자랑을 하지 않아야 한다.

다섯째, 아가페 사랑은 교만(驕慢)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성경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교만이라는 동사 궤시위타이(φυσιοῦται)는 ‘교만한 마음을 먹다.’ ‘스스로 교만하여지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풀무(φύσα)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하였는데, 풍구는 불을 피울 때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이다. 본문에서 교만하다는 것은 자신을 부풀려서 과장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진정성을 내포하는 아가페 사랑은 자신의 진면목을 숨긴 채 위선적으로, 자신을 부풀리고 허황되게 과장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아가페 사랑의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원하는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교만하지 않은 인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구성원들의 거부감과 저항을 피할 수 있다. 중국의 대학자인 장자는 교만한 사람은 권세가 증가하지 않으면 슬퍼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은 재산이 축적되지 않으면 근심한다고 주장하면서¹⁹⁾, 교만한 자와 탐욕스런 자의 특징을 갈파하고 있다.

여섯째, 아가페 사랑은 무례(無禮)히 행동하지 않는다. 본문의 “무례히 행동하다”의 그리스어 표현은 아스케모네이(ασχμημονει)이다. 고린도교회는 고린도라는 그 당시 큰 항구도시에 위치해 있었다. 항구도시여서 유동 인구가 많고 고린도 교회는 빈부와 사회적 신분의 격차가 큰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교회 안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교인들은 식사 모임이나 공동 집회에서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교인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였다. 이런 연유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가족인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상대방에게 예의를 지키고, 무례

19) 장자(蔣子)는 『잡편』(雜編)에서 “錢則不積 則貪者憂 權勢不尤則夸者悲”라고 탐욕스런 자와 교만한 자의 인격적 특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아가페 사랑의 한 가지 방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가페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는 지도자라면, 구성원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예의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무례한 말이나 행동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갈등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는 언행에 있어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는 미덕을 겸비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아가페 사랑은 자신의 유익(有益)만을 구하지 않는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다.”라는 그리스어는 제테이(ζητει)이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충족되기를 원하는 욕구(need)들이 있다. 이런 욕구를 A. Maslow는 욕구위계이론으로 설명하는데, 첫 단계가 생리적 욕구, 둘째 단계가 안정감의 욕구, 셋째 단계가 소속감의 욕구, 넷째 단계가 사랑의 욕구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자아실현의 욕구이다.²⁰⁾

사람이 소유하는 가시적인 물질적 재화는 분배할수록 자신의 몫이 감소하지만, 불가시적인 사랑은 타인들과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아가페 리더십을 발휘하려는 지도자는 이기적 차원을 넘어 이타적일 수 있어야 한다.

여덟째, 아가페 사랑은 쉽게 분노(忿怒)하지 않는다. 본문에 등장하는 ‘성내다’의 그리스어는 오르게(οργη)로써 일반적으로 3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혈액이나 활력이 증가한다는 뜻에서, ‘충동적인 성격’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둘째, 분노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오르게(οργη)는 특히 복수(復讐)나 형벌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형벌의 의미이다. 그런데 정당한 형태의 형벌이 아니라, 악이나 다른 악의 원천으로 인식되는 용어이다.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아가페 리더십을 발휘하려는 지도자는 감정적

20) Abraham Malsow는 인간의 욕구위계이론을 통하여 인간의 욕구가 기본적 단계에서 보다 고차원적인 단계로 연결된다고 설명했으며, 인간의 욕구(need) 가운데 가장 고차원적인 욕구는 self-realization(자아실현)라고 주장하였다

으로 자신의 부정적 감정인 분노의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분노에도 종류가 있는데, 부정적 분노인 울분, 통분과 격분이 있고 긍정적 분노인 의분(義憤)이 있다. 예수께서 분노하신 이유는 “성전 지도자들과 그 곳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의 물질적 탐욕 때문이었고(마 21:12), 그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성소인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²¹⁾

아홉째, 아가페 사랑은 악(惡)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본문의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에서 “생각하지”의 그리스어 로기조마이(λογίζομαι)는 ‘계산하다, 생각하다, 고려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이다.²²⁾ 이 내용에 대하여 NIV 표현은 “Love keeps no record of wrongs.”인데, 아가페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오류)들을 마음이나 생각에서 오래 간직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해석하면 좋을 것이다.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려는 지도자들은 구성원이나 주변 사람들의 허물과 악을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보복을 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 단순히 생각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생각(thinking)은 감정(feeling)과 말(speaking)에 영향을 주고, 생각은 행동(acting)으로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5. 한국교회 리더십 위기상황 극복의 대안으로써 아가페 리더십

아가페 리더십이 한국교회 리더십 위기상황 개선(또는 극복)의 대안

21) 김태수, “교회개혁을 위한 예수의 의로운 분노와 분노 상담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고찰”,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성경과 신학」 제51권(2009): 205-229.

22) 본문의 번역에 대하여 성서 주석가인 류형기는 개역성경의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는 흠정역 영어성경의 번역으로 본다. 그는 이 표현이 ‘생각지 아니하며’ 보다는 ‘원한을 품지 아니하며’로 번역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주장하는 성서학자이다. 참고적으로 영어단어 reckon의 영영사전의 표현을 살펴보면, “To consider as being; regard, To think”로써 “생각하다, 간주하다”라는 의미이다.

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아가페 리더십은 사랑의 리더십으로써 이타적, 헌신적 그리고 희생적이기 때문이다.

아가페 리더십에서 지도자는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리더(leader)나 서번트(servant) 리더와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신구범은 전제적 리더와 서번트 리더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²³⁾

〈표 4〉 전제적과 서번트 리더의 차이점

항목 \ 리더의 유형	전제적(專制的) 리더(ledader)	서번트(servant) 리더(leader)
사람에 대한 인식(생각)	목적달성의 수단	수단이 아닌 목적
사고방식	수직적	수평적
추종자의 태도(자세)	수동적	능동적
리더십의 첫출발	사람들을 리드하는 것	사람들을 섬기는 것

전제적 리더와 서번트 리더가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화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특히, 사람에 대한 인식에서 전제적 리더는 구성원들을 목적달성의 수단이자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서번트 리더는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인식한다는 것이 올바른 설정이요 방향이어서 리더십의 효과도 분명히 차별화될 것이다. 위의 도표에서는 4가지 항목만을 언급하지만, 다른 항목들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위의 도표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아가페 리더십에서 아가페 리더는 사람에 대한 인식, 사고방식, 추종자의 태도와 리더십의 첫출발

23) 신구범, 『리더십의 이론과 실제』 (서울: 형설출판사, 2007), 73. 이 도표는 저자(신구범)가 전제적 리더와 서번트 리더의 차이점을 서술적으로 설명한 것을 명료하게 대조시키기 위하여 연구자가 도표로 작성한 것이다.

의 항목들에서 전제적 리더나 서번트 리더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도표로 제시하고 설명을 추가하고자 한다.

〈표 5〉 전제적, 서번트와 아가페 리더의 차이점

전제적(專制的) 리더(leader)	서번트(servant) 리더(leader)	아가페(agape) 리더(leader)
목적달성의 수단	수단이 아닌 목적	하나님의 형상
수직적(垂直的)	수평적(水平的)	통전적
수동적	능동적	참여적
사람들을 리드하는 것	사람들을 섬기는 것	사람들을 성화(聖化)시키는 것

첫째, 사람에 대한 인식은 인간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가페 리더십은 사람을 수단이나 목적의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형상(the image of God)으로 인식한다. 구성원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인식하고 대우한다면, 구성원들은 지도자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추종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사고방식의 항목에서 전제적 리더는 수직적이고 서번트 리더는 수평적이지만, 아가페 리더가 통전적이라고 연구자가 표현한 것은 리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수직적으로 생각하지만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수평적으로 생각함으로써, 한 쪽의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의미이다. 셋째, 추종자의 태도에서 수동적이고 능동적이지만, 아가페 리더십에서 추종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추구한다. 넷째, 리더십의 출발이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 리드하거나 섬기는 것이지만, 아가페 리더십의 출발점은 사람들을 성화시킴으로써 리더십을 극대화하려고 최선을 다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참고적으로 서번트 리더십과 예수의 섬김의 리더십의 차이점을 조성중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²⁴⁾ 예수께서 보여주신 봉사의 자세는 영적 리더십의 훌륭한 모델이다. 리더의 위대함은 직위나 권력에 있는 것이

24) 조성중, 『목회자 리더십론』(서울: 도서출판 kmc, 2012), 286-287.

아니라, 봉사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는 리더십은 항상 가르침심을 겸비한 봉사였다는 점이 서번트 리더십과 다른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서번트 리더십은 봉사의 차원에서 머무르지만, 가르침(교육)은 겸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아가페 리더십에서 지도자는 구성원들을 가족의 식구처럼 섬기려고 노력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들을 위하여 행동할 때, 헌신적이고 희생적이다. 친부모는 자식이 다수인 경우, 유능하고 역량이 뛰어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자식보다, 무능하고 부족한 자식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부모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의 모습과 흡사하다. 이런 관점에서 아가페 리더십은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거나 변혁(變革)시킬 수 있는 긍정적 영향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아가페 리더십은 진리-추구적(truth-seeking) 리더십이기 때문이다.

독재적 리더십이나 권위주의적 리더십은 지도자나 경영자의 금전적 이익이나 명예, 또는 권력(power)을 추구하기 때문에, 구성원들 위에 군림하고 착취하며 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아가페 리더십은 진리를 추구하고 구성원들의 인간적 가치가 지도자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도자가 구성원들을 섬기고 헌신과 희생을 감수하려고 결단하고 실행하는 리더십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구성원들이 지도자를 의심하면서 방관자적 태도를 취할 수 있지만, 지도자의 진심을 파악하게 되면 적극적인 협력자가 되고, 지도자의 리더십에 감동하기 때문에, 조직이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동안 한국교회 지도자들(예: 목사)이라고 할 수 있는 각 교단의 총회장 선출의 과정을 살펴보면, 대형교단의 경우, 총회장 후보자로 당선되려면 선거비용으로 억대의 돈을 지출해야 하고, 대부분 출마자

개인의 돈이 아닌 교회의 현금을 사용한다. 그들은 진리를 추구하기 보다는 자신의 명예나 종교권력을 추구하면서도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어떤 조직의 지도자가 자신의 금전적 이득을 위해 돈을 추구하거나 자신의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면, 타락하기 쉽다. 또한, 지도자가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비(非)진리나 돈을 추구한다면, 조직과 구성원들에게 치명적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3) 아가페 리더십은 예수의 삶을 닮아가려는 희생(헌신)적 리더십이기 때문이다.

Wofford는 예수를 지도자가 구성원들을 섬기는 전형적 원형이고 모범이라고 주장한다.²⁵⁾ 아가페 리더십의 특성은 기독교적 리더십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기독교 최고의 지도자이신 역사적 예수의 삶을 닮아가려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진정으로 겸손하게 닮아야 할 인물은 교단의 총회장이나 대형교회의 담임목사가 아니라,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십자가를 담당하신 예수이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추구하고 닮으려고 하는 지도자는 일반적으로 대형교회 목회자이고, 그들의 목회는 주로 성공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정영진은 “십자가 리더십”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설명하면서, “민족이 살아나는 것은 지도자가 십자가 리더십을 발휘하면 된다. 교회가 사는 길은 목사와 성도가 십자가 리더십을 발휘하면 된다.”고 강조한다.²⁶⁾ 십자가 리더십의 특징은 헌신과 희생이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려놓는 결단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아가페 리더십과 일맥상통한다.

25) Jerry C. Wofford, *Transforming Christian Leadership* (Grand Rapids, MI.: Baker Books, 1999), 31.

26) 정영진, 『사람이 모이는 리더, 사람이 떠나는 리더』 (고양: 리더북스, 2006), 24.

6.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주는 시사점

1) 목회자(또는 목회상담자)가 아가페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사도 바울이 언급한 아가페 사랑의 특성들을 실행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아가페 사랑의 특성과 삶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나열해 주었다. 사랑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 바울은 아가페 사랑의 다양한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고 있는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에서 생각의 내용을, “성 내지 아니하며”에서 감정의 처리를,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에서 행동의 영역을 찾아낼 수 있다.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아가페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는 지도자는 생각하는 것, 감정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심사숙고하고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2) 목회자(또는 목회상담자)는 섬김의 지도자로서 아가페 리더십을 실행할 때, 치유자가 될 수 있다.

아가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하여 성도들을 섬기는 목회자는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김으로 섬김을 받을 수 있다. 예수께서도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²⁷⁾ 즉, 지도자는 섬기는 종(하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섬김의 지도자(servant-leader)는 치유자가 될 수 있다고 섬김의 리더십 저자인 Greenleaf는 언급하면서, 그는 섬기는 지도자가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근거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자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고귀한 비전(vision)과 목표에 도달하도록 섬김의 지도자가 도움을 줄 수

27)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마가복음 10:44).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²⁸⁾

어떤 조직이든 회장이나 사장과 같은 상급자보다는 하급자들이 훨씬 많은 편이고, 그들은 구조조정과 같은 형태로 언제 직장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아간다. 이런 수직적 구조 속에서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대다수의 하급자에 속하는 성도들은 긴장과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질병에 노출되기 쉽다. 이런 경우, 목회자는 섬김을 실천함으로써 평소에 지배당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당하며 사는 상처받은 성도들을 순수하게 도움으로써 치유자가 될 수 있다.

3) 목회자는 성도들을 영생(永生)으로 인도하고 교육(훈련)시키는 지도자로서, 아가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소중한 책임적 존재이다.

목회자가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 그 아이덴티티(identity)를 분명히 하고 사명감 속에 사역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의사와 같은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목회자로서 아가페 리더십을 발휘하는 삶을 영위하려면, 목회자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순례자(pilgrim)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정체성이 필요할 것이다.²⁹⁾

목회자가 아가페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지도자로서 생각의 내용과 깊이부터 구성원들과 차원이 다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생각은 감정과 언어로 표현되는 말, 그리고 행동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도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³⁰⁾

28) Robert K. Greenleaf, *Servant Leadership* (Macarthur, NJ.: Paulist Press, 1991), 227.

29) 창세기 47장 9절에는 애굽의 왕을 만난 야곱의 고백이 표현되어 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 십 년이니이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삶이 본향을 향하여 잠시 살다가 거쳐 가는 ‘나그네’라는 정체성이 있었고, 그것을 지엄한 왕 앞에서 고백하였다.

30) 김태수, “생명-중심적 상담에 대한 고찰”,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성경과 신학』 제77권(2016): 154.

생각 → 감정(또는 말) → 행동 → 습관 → 인격 → 인생

위의 화살표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생각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삶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아가페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는 지도자는 생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³¹⁾ 늘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신약성경의 대다수를 기록한 당대의 석학이었던 사도 바울은 바람직한 생각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다.³²⁾

아가페 리더십을 발휘하려는 지도자는 구성원들의 세속적 삶과 그들의 인생에 안내자 역할을 책임감 있게 하면서, 그들을 천국의 영원한 삶(영생)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³⁾

생각 → 감정(또는 말) → 행동 → 습관 → 인격 → 인생 → 영생

III. 닫는 글

이상으로 현대 경영학의 리더십 이론과 목회 리더십 이론, 아가페 리더십의 개념,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아가페 리더십의 차이점, 아가페 리더십의 실천방법, 그리고 한국교회 리더십 위기상황 극복의 대안으로써 아가페 리더십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31) Richard E. Nisbett, *The Geography of Thought*, 최인철 역, 『생각의 지도』 (파주: 김영사, 2004), 103-106. 저자는 동양인들은 세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데, 서양인들은 세상을 분석적이고 원자론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고 언급하면서, 사고방식의 내용과 차이점을 설명한다.

32)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생각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람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명사로 표현하면 진실, 경건, 정의, 정결, 사랑, 칭찬과 같은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라는 것이다.

33) 김태수, “생명-중심적 상담에 대한 고찰”, 155.

Max De Pree는 Robert Greenleaf가 섬김의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이라는 양서를 저술했다고 설명하면서, 리더십을 생각할 때 청지기로서의 지도자(leader-as-steward)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³⁴⁾ 세계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군림하고 지배하며 기득권을 사수하면서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행사해 오고 있다. 특히, 정치적 지도자와 경제계의 지도자들은 비정할 정도로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행사하면서 대중들에게 위화감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이런 관점에서 부정적 부작용이 많은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리더십이 아니라, 긍정적 효과가 뛰어난 권위적(authoritative) 리더십이 필요하다. Terry Anderson은 리더십의 본질이 변화라고 규정했는데³⁵⁾, 이런 관점에서도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아가페 리더십으로 변화된다면,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긍정적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아가페 리더십은 지도자가 구성원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며 착취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구성원들을 섬기고 솔선수범하는 헌신적, 희생적 그리고 이타적 리더십이다. 이런 차원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더욱 밝아질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헌신하고 솔선수범하면서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지도자를 선호하고 존경하며 기대한다. 그렇지만 자신이 그런 지도자가 되려는 노력을 얼마나 치열하게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아가페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를 막연히 기다리기 보다는, 자신이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 도리어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4) Max De Pree, *Leadership is an Art* (New York: Dell Publishing Group, Inc., 1989), 12. 연구자는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잘 발휘하면 감동을 주는 예술(art)의 경지에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35) Terry D. Anderson, *Transforming Leadership* (Amherst, MA.: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ess, 1992), 31.

아가페 리더십에 대하여 심도 있게 연구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리더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연구 과제로 남겨진다. 앞으로 아가페 리더십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세속적인 일반적 리더십을 보완하는 기독교적 섬김의 리더십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문헌 】

- 김상복. 『목회자의 리더십』.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7.
- 김태수. 『기독교 리더십의 이론과 실제』.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2.
- 신구범. 『리더십이 이론과 실제』. 서울: 형설출판사, 2007.
- 윤종성. 『리더십 입문서』. 서울: 시간의 물레, 2013.
- 이민규.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 서울: 교육과학사, 1996.
- 정영진. 『사람이 모이는 리더, 사람이 떠나는 리더』. 고양: 리더북스, 2006.
- 조광연. 『당신은 주님이 원하시는 성서적 지도자입니까?』.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6.
- 조성중. 『목회자 리더십론』. 서울: 도서출판 kmc, 2012.
- 최윤식 · 최현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2)』.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5.
- 구제홍. “마태 공동체 리더십의 특성과 상황”.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1996.
- 김태수. “교회개혁을 위한 예수의 의로운 분노와 분노 상담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고찰”.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성경과 신학」 제51 권(2009): 205-229.
- 김태수. “호모 크로누스(*Homo Chronus*)로서의 인간과 효과적 시간 관리에 대한 연구”.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2권 (2014): 122-123.
- 김태수. “생명-중심적 상담에 대한 고찰”.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성경과 신학」 제77권(2016): 154-155.
- 차승만. “목회자의 리더십과 교회구성원의 행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대학원, 2007.
- Anderson, Terry D. *Transforming Leadership*. Amherst, MA.: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ess, 1992.
- Barclay, William. *The Gospel of John*. Edinburgh: The Saint Andrew Press, 1975.
- DePree, Max. *Leadership is an Art*. New York: Dell Publishing Group, 1989.
- Greenleaf, Robert K. *Servant Leadership*. Macarthur, NJ.: Paulist Press, 1991.

Nisbett, Richard E. *The Geography of Thought*. 최인철 역. 『생각의 지도』. 파주: 김영사, 2004.

Nygren, Anders. *Agape and Eros*. 고구경 역. 『아가페와 에로스』.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8.

Sanders, J. Oswald. *Spiritual Leadership*. Chicago: Moody Press, 1967.

Wofford, Jerry C. *Transforming Christian Leadership*. Grand Rapids, MI.: Baker Books, 1999.

【 Abstract 】

Agape Leadership: A Christian Leadership for Overcoming the Leadership Crisis of Korean Churches

Tae Soo Kim

Baekseo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cademic research is to investigate ‘agape leadership’ as a new pattern of Christian leadership. In the main stream of authoritarian leadership, this kind of leadership can raise various problems. Authoritarian leadership which is different from authoritative leadership is generally apt to compel members to obey and sacrifice to authoritarian leader.

The researcher presents ‘agape leader’ as a new pattern’s Christian leadership. ‘Agape leadership’ is totally different from authoritarian leadership. The characteristics of this type of leadership are dedicative, sacrificial and altruistic. The writer presents three types of leaders: autocratic, servant and agape leader.

Through this academic paper the writer deals with the following issues: first, modern leadership theories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the theory of pastoral leadership. secondly, the concept of agape leadership. third, the differences between authoritarian leadership and agape leadership. fourthly, the practical methods of agape leadership. fifth, agape leadership as a new alternative of leadership crisis among Korean churches, and so forth.

The originality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issue of ‘agape leadership’ as an alternative to authoritarian leadership. The study method of this research is mainly to study reference books and articles related the issue of leadership.

Key words: Agape leadership, leadership crisis, Jesus, Paul, service.